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the middle aged men

Su-Joung C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prototype of a garment that allows middle aged men to look idealized by examining the type of perception of middle aged men based on their subjective evalu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the Q methodology, which is a subjective research method that finds correlations among middle aged men across subjective attributes. The types of perception of body shape of middle aged men were analyzed as three types: leaning forward shape with bird legs, developed upper body shape with thick legs, protruding abdomen obesity body shape. The leaning forward shape with bird legs was recognized as the lowest in the BMI index, and the shoulder and chest were sagging, legs were thinner than the body and leaned forward. And that the hip were protruding and had a flat rectangular shape. Developed upper body shape with thick legs was the second overweight type of BMI index. It was recognized that the ankle and calf thighs were thick and the upper abdomen protruded upper body development body. Protruding abdomen obesity body shape was the most obese type with BMI index. In this type, the height was the smallest, and the upper abdomen came out and the abdomen protruded, and the abdomen was more exuded than the chest, and the neck was thick and the hips were recognized as the big body. The middle aged men's cognitive body shape was classified as a similar to actual body shape. However, in the recognition type, the frontal and side body types were mixed and classifie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rgonomic patter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ach body type. This suggests that psychological effects can be obtained that allow the body shape that changes with age to be accepted more positively.

▶ Keyword: Body shape, Middle aged men, Perception, Type, Q-method

1. Introduction

현대의 중년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는 젊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 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영 포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40대를 일컫는 말로, 내 집 마련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영 포티의 특징이다[1]. 최근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여 '꽃중년'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2].

중년기는 노년이 시작되기 직전의 성년기로 인간의 인생단계 중 장년에서 노년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3]. 콜린스 사전에서는 중년을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의 사람으로 간주하며[4], Erik Erikson은 40-65세를 중년으로 정의하고 있다[5]. 국어사전에서는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으로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는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년이라 일컫는 40세부터 노년으로 간주되는 65세가 되기 전의 시기인 40-64세를 중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First Author: Su-Joung Cha, Corresponding Author: Su-Joung Cha

*Su-Joung Cha (carollain@seowon.ac.kr),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19. 02. 21, Revised: 2019. 03. 19, Accepted: 2019. 03. 19.

중년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체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중년 남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비만한 경향을 나타내며 허리와 배주위에 지방 침착이 집중되어 굴곡이 없는 체형으로 바뀐다. 높이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허리두께, 배두께의 두께항목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 탈모와 백모, 얼굴 주름살, 피부의 윤기와 탄력 감소 및 신진대사의 저하가 나타난다[8].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해 살펴보면, 성육진과 김애린은 중년 남성의 전신체형을 직접측정치에 의해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간접측정치에 의해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직접측정치에 의해서는 키를 포함한 신체 각 부위가 전반적으로 작고 비만하지 않으며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체형, 키가 큰 편이고 비만한 체형이며 가슴과 허리에 굴곡이 없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체형, 키가 가장 크고 가슴이 발달했으며 비만하고 배가 가장 많이 나온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간접측정치에 의해서는 어깨너비가 상대적으로 좁고 배와 엉덩이너비가 넓은 A형, 어깨와 허리너비, 허리와 엉덩이 차가 적어 굴곡이 없는 H형, 어깨가 넓고 어깨와 허리의 차이가 큰 Y형, 정면 너비가 가장 작고 어깨와 허리너비, 허리와 엉덩이너비 차가 큰 X형으로 분류되었다[9]. 최진영은 35-49세의 남성 하반신 체형을 3개로 유형화하였다. 엉덩이와 다리가 굵은 체형, 하반신이 왜소한 체형, 하체의 길이가 짧으며 다리 굵기는 중간정도이고 엉덩이와 복부 부위의 크기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복부비만 체형 등 3개로 분류되었다[10].

이처럼 20대 초반에는 체지방이 없는 건강한 역삼각형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20대 후반부터 둘레, 두께, 너비 항목이 급격히 증가하여 30-40대에는 가슴부터 엉덩이의 굴곡이 없고 가슴과 허리두께, 엉덩이와 배두께가 거의 비슷하여 복부가 체지방으로 인해 돌출되어 허리구분이 없는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체형으로 변하게 된다[11].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한 연구로는 전신체형에 관한 연구[12], 하반신 체형에 관한 연구[13], 비만체형에 관한 연구[14-15] 등이 있다. 그러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측정치를 분석한 체형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64세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유형화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년 남성의 체형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의복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봄으로써 중년 남성이 신체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Q Population and Q Sample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며,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16].

Q모집단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 피험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16].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은 Q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으로 보통 수십 개로 구성된 카드 위에 쓰인 진술문일 수 있다. 즉, 중년 남성의 체형과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12-15]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Q모집단의 40개 진술문을 의복구성 관련 교수님과 전문가에게 제공한 후, 논의를 통해 Q방법론에 적당한 진술문 수를 추출하였다. Q표본은 상반신 체형, 하반신 체형 관련 진술문 31개로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as a sample

Q Sample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7	I have a rhombus figur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8	I have a trapezoid with a larger hip circumference than a waist circumference.
3	I have a developed lower body.	19	I have a big calf.
4	I have a sagging hip.	20	I am leaning forward.
5	I have a thick neck.		
6	I have no difference between body thickness and width.	21	I am backwardly bent.
7	I am fat.	22	My abdomen is protruding upper part.
8	I don't have muscles.	23	My abdomen is protruding under part.
9	I have a big hip.	24	I have a folded abdomen.
10	I have thick thighs.	25	My legs is thinner than body.
11	I have a flat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waist and hip.	26	Width of body is thicker than depth.
12	I have a prominent side.	27	I have sagging shoulders.
13	My abdomen is protruding than the bust.	28	I have protruding hip.
14	I have a lot of flesh on my arm.	29	I have a lot of flesh on the back.
15	I am tall.	30	I have sagging bust.
16	I have big bust.	31	I have thick ankles.

2. P Sample

P표본이란 P모집단에서 추출된 실제로 Q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 혹은 피험자를 가리킨다. Q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P표본이 많은 경우 각 항목의

점수들은 평균값으로 회귀하여 다른 요인들을 1-2개의 요인으로 편중시켜 요인의 수를 극도로 제한시키므로 소표본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17]. 본 조사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P표본은 임의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3. Q Sorting

Q소팅은 특정조건에 따라 자극물들을 그의 관점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강제분포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Q표본을 정상분포와 유사 분류하여 주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P샘플들은 Q표본 31개를 읽고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의 3그룹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한다. 부정 진술문도 바깥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부터 배치한다(Figure 1). 남은 진술문은 중립에 배치한다. Q소팅이 종료되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 4개,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 4개에 대한 이유를 심층 면담한다. 면담 내용은 분석결과에 활용한다.

4. Statistic and Analysis Method

Q분석은 퀴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으로 이루어졌고,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로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1, 중립을 5,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9로 코딩하였다.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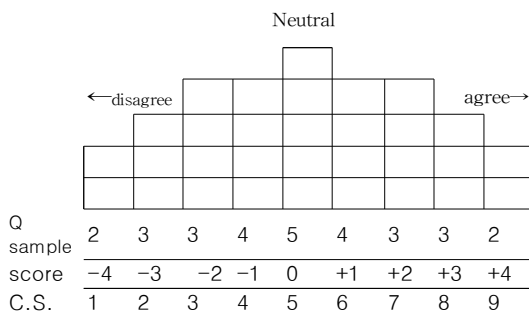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III. Result

1. Analysis Results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Table 2>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98.385%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은 제1유형과 제3유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제1유형은 7명, 제2유형은 9명, 제3유형은 4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52.57세로, 몸무게는 평균 65.86kg, 키는 173.29cm, BMI(Body Mass Index)는 21.93으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제1유형 중 1명은 비만, 2명은 과체중, 4명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3명은 운동을 하고 4명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은 평균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종류는 산책이 1명, 헬스가 2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먹는 음식은 모두 한식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평균 연령은 50.11세로, 몸무게는 71.33kg, 키는 171.22cm였으며, BMI는 24.33으로 과체중이었다. 그러나 제2유형 중 정상이 3명, 과체중이 2명, 비만이 4명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경우가 7명, 하지 않는 경우가 2명이었다. 운동은 일주일에 1-2회 정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헬스와 수영, 등산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는 한식을 주로 먹는 경우가 8명, 육류를 주로 먹는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52.25세로 몸무게는 평균 79.0kg, 키는 168.75cm였으며, BMI는 27.74로 비만이었다. 3명은 비만이었고, 1명은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2명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운동을 하지 않았다. 주로 하는 운동은 헬스였으며, 한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5.8027	3.3246	1.5790
Variance	0.2901	0.1662	0.0790
Cumulative variance	0.2901	0.4564	0.5353

Table 3. Correlation of 3 types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0.369	-0.462
Type 2	0.369	1.000	0.030
Type 3	-0.462	0.030	1.000

3요인의 유형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유형 1은 근육이 없다(No.8),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No.11),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형 체형이다(No.17), 허리둘레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큰 사다리꼴 체형이다(No.18),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No.20), 아랫배가 나왔다(No.23),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No.25), 너비보다 두께가 두껍다(No.26), 어깨가 처져 있다(No.27),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No.28), 가슴이 처져 있다(No.30), 발목이 두껍다(No.31)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유형 2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 몸통 두께와 너비의 차이가 없다(No.6), 허벅지가 두껍다(No.10), 키가 크다(No.15), 종아리가 굵다(No.19),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21), 등에 살이 많다(No.29)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Div.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BMI
Type 1 (n=7)	1	0.2973	42	76	172	25.69
	5	0.7195	52	70	174	23.12
	6	2.0947	49	60	178	18.94
	11	1.1593	53	60	176	19.59
	17	1.0540	58	70	170	24.22
	18	1.1042	50	58	165	21.30
	20	0.7883	58	67	178	21.15
Type 2 (n=9)	2	0.7371	56	76	173	25.39
	4	0.3773	48	85	173	28.40
	7	1.2370	55	65	156	26.71
	9	1.2309	41	75	185	21.91
	10	1.2839	43	70	175	22.86
	12	1.3162	55	65	173	21.72
	13	1.7112	53	70	174	23.12
	15	0.5693	53	63	156	26.91
Type 3 (n=4)	19	0.7690	47	73	176	23.57
	3	0.6139	46	70	160	27.34
	8	0.7781	58	95	170	32.84
	14	2.7249	54	75	170	25.95
	16	1.1532	51	76	175	24.82

Table 5. Demographic variables of P sample

Div.	No.	Academy	Marriage	Exercise	Exercise Frequency	Eating
Type 1 (n=7)	1	Graduate	○	○	1-2/1week	K-food
	5	Graduate	×	×	-	K-food
	6	Graduate	○	○	1-2/1week	K-food
	11	Univ.	○	×	-	K-food
	17	Univ.	○	×	-	K-food
	18	Graduate	○	×	-	K-food
	20	Univ.	○	○	1-2/1week	K-food
Type 2 (n=9)	2	Univ.	○	×	-	K-food
	4	Univ.	○	×	-	Meat
	7	Univ.	○	○	1-2/1week	K-food
	9	Graduate	○	○	1-2/1week	K-food
	10	Univ.	○	○	7/1week	K-food
	12	Univ.	○	○	7/1Month	K-food
	13	Univ.	○	○	7/1Month	K-food
Type 3 (n=4)	15	Univ.	○	○	7/1Month	K-food
	19	Univ.	○	○	1-2/1week	K-food
	3	Graduate	○	○	1-2/1week	K-food
	8	Univ.	○	×	-	K-food
	14	High	○	×	-	K-food
	16	Univ.	○	○	7/1Month	K-food

유형 3은 복부가 돌출되어 있다(No.1),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3), 엉덩이가 처져 있다(No.4), 목이 굵다(No.5), 뚱뚱한 체형이다(No.7), 엉덩이가 크다(No.9), 옆구리가 돌출되어 있다(No.12),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No.13), 팔에 살이 많다(No.14), 가슴이 크다(No.16), 윗배가 나와 있다(No.22), 배가 겹쳐져 있다(No.24)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았다(Table 6).

Table 6. Standard scores by type of 3factors(Z-score)

No.	Statement	Type1	Type2	Type3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0.9	1.1	1.7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0.2	1.6	0.9
3	I have a developed lower body.	-1.1	-1.2	-0.8
4	I have a sagging hip.	-0.9	-1.2	0.8
5	I have a thick neck.	-1.3	-0.3	1.1
6	I have no difference between body thickness and width.	-0.8	1.1	0.8
7	I am fat.	-2.1	-1.8	0.1
8	I don't have muscles.	0.6	-1.0	0.3
9	I have a big hip.	-0.7	-0.8	1.1
10	I have thick thighs.	-0.3	1.5	0.1
11	I have a flat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waist and hip.	1.1	-1.0	0.3
12	I have a prominent side.	-0.9	0.2	0.9
13	My abdomen is protruding than the bust.	-1.2	-0.3	1.8
14	I have a lot of flesh on my arm.	-1.2	-0.8	0.1
15	I am tall.	0.3	0.5	-0.7
16	I have big bust.	-0.3	-0.4	0.9
17	I have a rhombus figur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0.8	-1.6	-1.1
18	I have a trapezoid with a larger hip circumference than a waist circumference.	0.5	-1.1	0.3
19	I have a big calf.	0.2	1.1	-0.2
20	I am leaning forward.	2.0	-0.8	-0.5
21	I am backwardly bent.	-0.4	0.3	-0.9
22	My abdomen is protruding upper part.	0.7	1.5	1.7
23	My abdomen is protruding under part.	-0.2	-0.7	-1.0
24	I have a folded abdomen.	-0.5	-0.7	-0.2
25	My legs is thinner than body.	1.4	0.3	-1.7
26	Width of body is thicker than depth.	0.4	0.3	-1.4
27	I have sagging shoulders.	1.5	0.4	-1.2
28	I have protruding hip.	1.1	0.9	-0.2
29	I have a lot of flesh on the back.	1.0	1.1	0.2
30	I have sagging bust.	1.2	0.3	-1.3
31	I have thick ankles.	1.4	0.6	-1.8

2. Formation of Q type

2.1 Type 1: Leaning forward shape with bird legs

제1유형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중년 남성은 앞으로 숙여진(No.20) 유형이다. 제1유형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어깨가 처지고(No.27), 가슴이 처져 있으며(No.30),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고(No.25), 발목이 두껍다고(No.31) 생각하고 있었다. 또, 엉덩이가 돌출되고(No.28)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이며(No.11) 앞으로 숙여진 체형이라고(No.20)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하체가 발달되고(No.3), 팔에 살이 많으며(No.14)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된 체형이라는(No.13)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이 굵고(No.5) 뚱뚱한 체형(No.7)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6번(2.09), 11번(1.16)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6번 응답자는 “앞으로 숙여진 체형”이라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배가 하나도 없어 자꾸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몸에 비해 다리가 가늘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몸에도 살이 없지만 몸에 비해 다리는

더 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키가 크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년의 평균 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깨가 처져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숙여지다 보니 어깨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다”, “뚱뚱한 체형이다”, “허벅지가 두껍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마른 편이라 복부에 살이 없으며, 허벅지에도 살이 없어 가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마른 편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ble 7. Characteristic of Type 1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0. I am leaning forward.	1.98
27. I have sagging shoulders.	1.51
25. My legs is thinner than body.	1.39
31. I have thick ankles.	1.39
30. I have sagging bust.	1.18
28. I have protruding hip.	1.09
11. I have a flat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waist and hip.	1.08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3. I have a developed lower body.	-1.09
14. I have a lot of flesh on my arm.	-1.17
13. My abdomen is protruding than the bust.	-1.23
5. I have a thick neck.	-1.26
7. I am fat.	-2.13

11번 응답자의 경우 “키가 크고 앞으로 숙여진 체형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고 어깨가 처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평균에 비해 키가 큰 편이며, 배에 움푹 들어가 있어 힘이 없어 자꾸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부위에도 살이 없지만 다리에는 더 살이 없고 어깨가 숙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이 굵고 뚱뚱한 체형은 아니며 복부가 나오지 않았고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목이 가늘고 길며 마른 편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복부에 살이 없어 오히려 들어가 있고, 배보다는 가슴이 더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어깨와 가슴이 처지고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며 앞으로 숙여진 체형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고 뚱뚱한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제1유형을 새다리 숙인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2 Type 2: Developed upper body shape with thick legs

제2유형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중년 남성들은 제1유형과는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발목이 두껍고(No.31), 상체가 발달된 체형이며(No.2), 허벅지가 두껍고(No.10) 윗배가 나왔다(No.22)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또, 등에 살이 많고

(No.29) 복부가 돌출되어 있으며(No.1) 몸통 두께와 너비의 차이가 없고(No.6), 종아리가 굵다(No.19)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아 뚱뚱한 체형이고(No.11) 허리둘레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큰 사다리꼴 체형이며(No.18). 엉덩이가 처져 있다(No.4)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No.3),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꼴 체형이며(No.17), 뚱뚱한 체형이다(No.7)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Characteristic of Type 2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31. I have thick ankles.	1.63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60
10. I have thick thighs.	1.50
22. My abdomen is protruding upper part.	1.46
29. I have a lot of flesh on the back.	1.10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10
6. I have no difference between body thickness and width.	1.06
19. I have a big calf.	1.06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1. I have a flat rectangular shape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waist and hip.	-1.03
18. I have a trapezoid with a larger hip circumference than a waist circumference.	-1.06
4. I have a sagging hip.	-1.20
3. I have a developed lower body.	-1.21
17. I have a rhombus figur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64
7. I am fat.	-1.76

요인가중치가 큰 12번(1.32), 13번(1.71) 응답자는 제2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2번 응답자는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윗배가 나와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른 부위에 비해 다리가 가는 편이다”, “엉덩이가 크지는 않지만 돌출되어 있다”,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역삼각형 체형이다”, “나이가 들면서 윗배가 나오기 시작하여 음식을 먹으면 더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엉덩이가 크다”,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꼴 체형이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목이 굵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엉덩이는 작은 편이라 바지를 사면 엉덩이부분이 남는다”, “윗배가 살짝 나오기는 하였지만 엉덩이보다는 허리둘레가 작다”,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목은 굵지 않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13번 응답자는 윗배가 나오고 발목이 두꺼우며 키가 크고 뒤로 젖혀진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윗배가 나와 있고 다른 부위에 비해 발목이 두껍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팔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늘고 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키가 평균보다는 큰 편이며 대체로 뒤로 젖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팔에 살이 많고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꼴 체형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

로는 몸에 비해 팔이 가늘고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엉덩이가 처지지 않았고 뚱뚱한 체형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올라가 있고 보통 정도의 체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2유형의 경우 발목, 종아리 허벅지가 두껍고 윗배가 나온 복부 돌출형 상체 발달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제2유형을 굵은 다리 상체발달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3 Type 3: Protruding abdomen obesity body shape

제3유형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유형, 제2유형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3유형의 중년 남성들은 복부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고(No.13), 윗배가 나오고(No.22), 복부가 돌출되었으며(No.1) 엉덩이가 발달되고(No.9) 목이 굵은(No.5)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형 체형이다(No.17), 어깨가 처져 있다(No.27), 가슴이 처져 있다(No.30), 너비보다 두께가 두껍다(No.26),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No.25), 발목이 두껍다(No.31)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Table 9. Characteristic of Type 3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3. My abdomen is protruding than the bust.	1.77
22. My abdomen is protruding upper part.	1.66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65
9. I have a big hip.	1.14
5. I have a thick neck.	1.11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7. I have a rhombus figure whose wai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10
27. I have sagging shoulders.	-1.16
30. I have sagging bust.	-1.32
26. Width of body is thicker than depth.	-1.44
25. My legs is thinner than body.	-1.69
31. I have thick ankles.	-1.81

요인가중치가 큰 14번(2.72)과 16번(1.15)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4번 응답자는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 “윗배가 나와 있다”, “복부가 돌출되어 있다”,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배가 나와서 가슴보다 더 나와 있다”, “윗배가 많이 나온 편이며 아랫배는 없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복부비만이 심하다”,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 “너비보다 두께가 두껍다”, “허리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마름모 체형이다”, “아랫배가 나와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리나 몸이 비슷하다”, “너비와 두께가 비슷한 편이다”, “거의 일직선에 가까우며 허리가 더 큰 체형은 아니다”, “배가 나오긴 하였지만 윗배만 나왔고 아랫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16번 응답자는 “윗배가 나왔다”, “등에 살이 많다”, “엉덩이가 크다”, “배부위가

가슴부위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윗배가 많이 나왔다”, “등에도 살이 붙기 시작하였다”, “남자들의 평균체형에 비해 엉덩이가 큰 편이다”, “배부위 특히 윗배가 많이 나와서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 보인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슴이 처져 있다”, “발목이 두껍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어깨가 처져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 있어서 가슴이 처지지는 않았다”, “발목은 두껍지 않다”,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옷을 살 때 어깨가 잘 맞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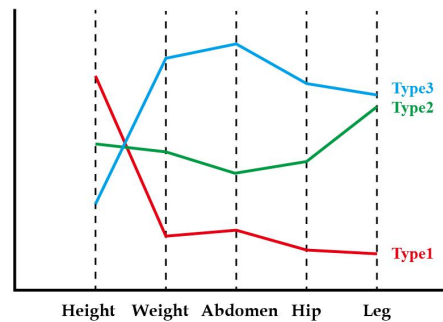


Fig. 2. Part differences by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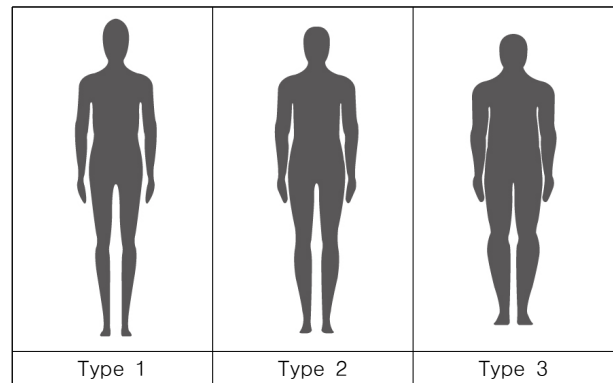


Fig. 3. Body Shape by types

제3유형은 BMI 지수가 가장 높아 비만이고, 키는 제일 작은 유형으로 윗배가 나와 복부가 돌출되어 배가 가슴보다 더 나온 체형이며 목이 굵고 엉덩이가 큰 체형이다. 제3유형을 복부 돌출 비만 체형으로 명명하였다(Fig.2)(Fig.3)(Table 10).

Table 10. Perception types of Middle age men

Types	Characteristics
Type 1	-Shoulder and Chest sag -Legs are thinner than body. -My body was bowed forward. -The hips protruded. -A flat rectangular shape
Type 2	-Ankle, calf and thigh are thick. -Abdomen protruding from the top -Upper body development type
Type 3	-Upper abdomen protruding -Abdomen more extruded than bust -Neck is thick and hips are big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년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인식하는 유형을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고찰함으로써 중년 남성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의복원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적 선행연구들은 중년 남성의 실제 신체 측정치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중년 남성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중년 남성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성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 남성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유형의 주관성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새다리 숙인 체형, 굵은 다리 상체 발달 체형, 복부 돌출 비만 체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새다리 숙인 체형은 BMI지수가 가장 낮아 정상에 속하였으며 어깨와 가슴이 처지고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며 앞으로 숙여진 체형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엉덩이가 돌출되어 있고 밋밋한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굵은 다리 상체 발달 체형은 BMI지수가 두 번째로 과체중 유형으로 발목, 종아리 허벅지가 두껍고 윗배가 나온 복부 돌출형 상체 발달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복부 돌출 비만 체형은 BMI지수가 가장 큰 비만 유형으로 키는 가장 작고 윗배가 나와 복부가 돌출되어 배가 가슴보다 더 나온 체형이며 목이 굵고 엉덩이가 큰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실제 중년 남성의 체형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김지은과 김은경은 35-69세의 남성의 체형을 분류하여 35-54세와 55-69세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35-69세 남성의 체형은 키가 작아 왜소하나 배가 나오고 팔과 다리는 가늘며 어깨와 등너비가 좁고 어깨가 처지지 않은 체형, 키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씬하며 어깨와 등너비는 넓으나 어깨가 처진 체형,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 전체적으로 체격이 큰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35-54세의 중년 남성은 키는 보통이고 몸통부위는 날씬하며 어깨와 등너비는 넓으나 어깨가 처진 체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김지은과 김은경의 실제 체형분류는 본 연구의 인식 체형 유형과 비슷하게 분류되었다. 사이즈코리아의 한국인 전체체형에 따르면 남성의 체형은 40대의 경우에는 작은 사각체형의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역삼각체형, 큰 사각체형, 삼각체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사각체형이 31.4%로 가장 높고 작은 사각체형, 큰 사각체형, 삼각체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는 큰 역삼각체형이 31.5%, 역삼각체형, 작은 사각체형, 삼각체형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19]. 작은 사각형 체형에서 사각체형으로 변화되고 나이가 들면 하반신의 살이 빠져 큰 역삼각체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사각형 체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분류되는 체형과 실제체형이 비슷하게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식유형에서는 정면과 측면 체형이 혼합되어 분류되었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체형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다리 숙인 체형의 경우에는 다리를 좀 더 굵게 보이게 하면서 등이 곧게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패턴제작 및 디자인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굵은 다리 상체 발달 체형은 다리를 얇게 보일 수 있는 패턴 제작 및 디자인적인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복부 돌출 비만 체형은 복부를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적 구성 및 복부의 맞음새를 개선할 수 있는 패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체형별 특징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패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나이가 들며 따라 변화되는 체형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서울 경기 지역의 40-64세 중년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체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Q방법론이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지만 일반화의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실제 측정치 분석을 통하여 인식 체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Daum dictionary, "Young Forty,"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952>
- [2] Daum dictionary, "gold papa,"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422373&supid=kku010165241>
- [3] Wiki dictionary, "Middle age,"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85%84>
- [4] CollinsDictionary.com, "Collins English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middle-age>
- [5] S. A. McLeod, "Erik Erikson-Psychosocial Stages," <https://www.simplypsychology.org/Erik-Erikson.html>
- [6] Naver Korean Dictionary, "Middle age,"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4%91%EB%85%84>
- [7] O. J. S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middle aged men's body shapes and the jacket patter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whan University, p.109, 2003.
- [8] J. S. Shim, "A Study of middle-aged men's body satisfaction, make-up recogni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pp.7-11, 2013.

- [9] O. J. Sung and A. R. Kim, "A Study of middle aged men's body shapes- analysis of direct anthropometric measur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1, pp.37-51, Jan 2004.
- [10] J. Y. Choi, "Analysis of men's lower body figures and development of suit pants patterns for MTM system(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pp.65-79, 2015.
- [11] P. H. Cho, "A Study on the running type nipper pattern development for adult men(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pp.5-9, 2006.
- [12] O. J. S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middle aged men's body shapes and the jacket patter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umwhan University, 2003.
- [13] J. Y. Choi, "Analysis of men's lower body figures and development of suit pants patterns for MTM system(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5.
- [14] O. J. Sung and H. J. Ha, "A Study of middle aged obese men's body shapes-35-55 years of age," *Design Forum*, Vol.35, pp.39-50, May 2012.
- [15] B. N. Lee and M. A. Seo, "A Classification of Obese middle-aged men's lower body shapes,"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Vol.19, No.6, pp. 1150-1162, Dec 2011.
- [16] H. K. Kim, "Q-methodology," *Communicationbooks*, p.1, 2007.
- [17] H. K. Kim, "Q-methodology," *Communicationbooks*, pp.113-118, 2007.
- [18] Y. M. Noh, "Development of Torso block for men in their body shape data(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18] J. E. Kim and E. K. Kim, "A Study on analysis of body types of active senior males-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middle aged m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41, No.4, pp.722-740, Aug 2017.
- [19] Size Korea, "Korean Body Shape," <https://sizekorea.kr/3d-body/korean-all-body-type/10>

Authors



Su-Joung Cha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lothing and Textiles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in 1996, 2005 and 2009, respectively. Dr. Cha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at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in 201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and Clothing, Seo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uman body, virtual 3D simulation, sewing technology and pattern making.